

# 2010.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0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0.7.27	대전MBC 대회의실	9/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여운철 위원, 신현대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헌 전략기획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8	7	-	3	18	-	1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5	1	19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건	
교양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건강에 유용한 정보나 날씨 관련 프로그램 방송 요구	건강플러스(TV)와 3830상담실(R), 건강리포트(R) 등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한증과 더위로 인한 무기력증 예방법 등을 소개	'10.6월
교양	토론 방송의 진행자가 프로그램 전체를 매끄럽게 이끄는 능력 부족하다고 지적	7월 1일 방송분부터 내부 토론전문 MC 육성 지침에 따라 보도국장으로 변경함	'10.6월
기타	뉴스 앵커 다소 산만하고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앵커멘트도 호소력 떨어짐	앵커 재교육과 함께 매일 실시하고 있는 자체 모니터 강화함	'10.6월
방송편성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를 결산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하는 마무리 성격의 프로그램 필요성 제시	선거 이후 6/10, 17, 24일 3차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시·도 교육감 당선자를 초대해 선거 결산했으며 6월 4일 시사플러스에서 지역 표심 분석 내용을 방송함	'10.6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의 배경 세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미 지적한바 있다. 추가로 앵커의 코디와 메이크업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방송에 적절치 않은 체크무늬 의상을 입거나 계절과 색감 맞지 않는 옷 입는 경우가 있었다. (김진국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앵커의 의상과 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앵커들에게도 자체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li> </ul>	수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4일 학력평가 관련 보도 날카로운 지적은 좋았으나 학력평가 자체에 대한 본래 취지 설명은 없다보니 객관적이지 못하고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생각 들었다. (김진국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력평가 실시 배경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으며 7/14일 보도는 이에따른 부작용 문제 등을 중점 취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부모 반응 등 보다 객관적인 보도에 힘쓰겠습니다.</li> </ul>	의견참고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사플러스 다시보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 또, R&amp;D특구의 위기를 다룬 방송분에서는 내용적으로 깊이 있고, 구성도 좋았지만 교과부와 지경부 등 중앙정부의 입장만 포함되고, 정작 대전시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웠다. (김진국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지정, 예산편성, 집행 등 중요 한 결정사안들이 중앙부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아 정부 입장을 많이 다루었고 대전시의 입장도 정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향후 특구관련 방송에 대전시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li> </ul>	수용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28 재보선 관련 토론회를 보며 진행자 교체 후 개선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에 패널과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한다거나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 (유치벽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대전MBC가 사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선거방송에서 각 후보들의 발언을 강제로 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도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li> </ul>	수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편된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로 모니터하려 했지만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 아쉬웠다. 유저 밀착형 매체인 라디오 부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홈페이지 활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원칙적으로 익일 오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이 늦어져 일</li> </ul>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재영 위원)	시적으로 업데이트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정상화됐습니다. 홈페이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	o 전국시대 개편 후 신설된 뉴스브리핑의 경우,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하다보니 전달력과 기사 이해도 모두 좋았다. 정규 뉴스에도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재영 위원)	o 뉴스브리핑은 개편에 따른 신설 코너로 차장급 기자 5명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 친절한 뉴스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기타	o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부산MBC가 제작하고 대전MBC가 기획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전MBC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이런 형태의 공동제작, 공동기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인 지역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김재영 위원)	o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부산MBC에서 제작하는 외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전MBC기획이라는 타이틀은 프로그램 편성 등 큰 틀에서 적용된 개념입니다. 기존의 외주가 비슷 비슷한 소재의 다큐 일색이었는데 시청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편성했으며 현재 '홍콩 TV' 등 외국에서도 방송되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참고
교양	o 집중토론이 시사분석으로 바뀌었는데 구성과 형식이 그대로이다. 주제의 자료화면으로 비디오물을 활용했으면 한다. (김재영 위원)	o 도입부분에 의제와 관련된 리포트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편에 따라 장기적으로 구성과 형식의 변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수용
보도	o 뉴스의 자료화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현장감과 뉴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안정선 위원)	o 대부분의 자료화면이 4:3이라 현재 16:9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자료화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o 집중호우 관련 뉴스가 많았지만 피해 상황 등 현상 전달에만 급급해 사고 발생 원인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만큼 심도 있는 취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로부터 하역금 뉴스를 본 뒤 궁금증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안정선 위원)	o 집중호우 관련 뉴스에서는 타사보다 빠른 보도도 있었던 반면, 놓치거나 늦은 보도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해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o 사립유치원 관련 보도는 유치원 경영자나 정부의 입장 위주로 취재됐는데 아동의 접근성이나 학부모의 의견 등이 잘 나타나도록 취재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안정선 위원)	o 사립유치원 관련 보도는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정작 수요자인 아동과 학부모의 입장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균형 있고, 종합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적인 뉴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편성	○ 좌충우돌 두 남자의 만국유람기와 타임워프는 모두 오락 프로그램인데 마침 모두 월요일에 편성돼 있다. 편성 전략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정선 위원)	○ 물론, 대전MBC의 프로그램만 본다면 오락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으나 편성은 릴레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전체의 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수직과 수평적 균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월요일에 오락이 취약해 두 프로그램을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론
보도	○ 세종시 문제의 경우, 일단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의 추진상황과 추가로 필요한 부분, 대전시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조명해 달라. (방기봉 위원)	○ 세종시는 충남 뿐 아니라 대전, 충북과의 연관성도 높은 만큼 기획보도 또는 프로그램 <시사분석>을 통해 연계성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수용
교양	○ 시사플러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방송분에서는 학부모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매우 교육적인 내용이어서 긍정적이었다. (김경옥 위원)	○ 장애인 복지문제는 한 국가의 인권과 복지혜택 정책의 시금석이니 만큼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을 계속 주시하고 비판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언론의 책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수용
교양	○ 시사플러스 장애인 복지 관련 방송분은 내용도 좋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두가지 제약 조건을 지닌 여성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김경숙 위원)	○ 관심과 격려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특별히 여성장애인 관련한 사안과 이슈가 있을 경우 시사플러스에서 충실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교양	○ 시사분석 진행자 교체 후 진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어 긍정적이다. 반면, 패널 선정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소개 대학교수만 출연시키는 것보다는 충남 소재 대학교수도 섭외하면 좋겠고, 세종시 관련 방송분에서도 원안 찬성 입장을 가진 패널만 구성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패널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김경숙 위원)	○ 토론프로그램의 성패는 찬,반양측의 패널이 모두 출연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매번 찬반 양측을 모두 포함하는 섭외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타이틀도 토론 형식이 아닌 현안을 집중 해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제기 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패널을 섭외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 다문화가정 기획보도가 신설돼 기대감이	○ 앞으로도 매달 2-3차례씩 지속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크다. 농촌의 현실과 대책, 문제점과 대안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영광 부위원장)	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 부여 궁남지의 경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쉴 공간, 음식점이 전무한 상태이다. 뉴스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영광 부위원장)	○ 대백제전을 앞두고 공주와 부여 등의 관광성을 조명하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수용
교양	○ 시장상인들의 삶을 다룬 e세상이야기의 경우, 젊은이들도 볼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자막 글씨체가 굉장히 읽기 힘들었는데 제작진의 의견이 궁금하다. 각 프로그램의 사후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인순 위원장)	○ 젊은 시청자들이 보다 많이 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하고 자막의 시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겠으며 아울러 현행 자체 모니터 평가와 외부 모니터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사후 평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용